

□ 종합의견(영국)

이번 사업에 지원한 팀들의 면면을 보며 한국 대중음악의 다양성과 역량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는 긍정적인 느낌을 받았다. 특히 지원자들의 기존 해외 이력이 이미 화려하다는 점에서 세계 시장으로 나가려는 의지와 한국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같이 높아지고 있는 좋은 시점이란 생각이 들었다.

심사위원 개개인의 관점이 달라 하나의 기준으로 요약될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첫째, 쇼케이스 현장에서 해외 관계자들의 좋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가. 공연을 통한 해외 시장 진입이 현실적 취지인 만큼 이 부분을 중요 사항으로 검증했다. 둘째, 음악적인 역량이 뛰어난가. 아무리 홍보를 잘해도 음악이 좋아야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만큼 서류로 확인할 수 없는 음악적인 부분을 기존 청취 경험과 검색 등을 통해 충분히 고려하였다. 셋째, 기회를 활용해 커리어 모먼트로 활용할 역량을 갖추었는가. 쇼케이스의 목적이 이후 활동을 위한 초석인 만큼 더 멀리 뻗어갈 수 있는 네트워킹 의지와 능력을 갖추었는지 현실적으로 판단했다.

근소한 차이로 최종 팀들이 선정된 만큼 더 많은 아티스트들을 선정하지 못해 아쉬웠다. 심사숙고해 선정한 팀들인 만큼 현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어 커리어 상승에 좋은 순간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